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7월 19일(금)

(음력 6월 14일)

Пятница

19 июля 2024 г.

№ 28 (1209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 20일은 국제 체스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러시아에 최초 수소 시험장, 사할린에 개소

사할린주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 지부 해양연구자동화장비 특별설계국 구역에서 러시아 최초 수소시험장이 개소되었다고 사할린주 정부 측이 전했다. 시험장 개소로 많은 유리한 점들이 제공되는데 예를 들면 수소 연료의 도움으로 외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대중교통과 중장비를 친환경 연료로 작동하게 된다.

수소 시험장 개소 기념식에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러시아 정부 대표들과 산업 협력자들이 참석했다.

사벨리에브 부총리, 사할린의 무인항공 산업 발전 높이 평가

지난 17일(수) 사할린을 방문한 러시아 정부 위탈리 사벨리에브 부총리가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푸시스트' 간이비행장을 찾았다. 이 곳은 대규모 집중교육을 하는 '아르헨펠라그'의 한 연습장으로 무인항공기 시스템 훈련을 하는 장소이다. 훈련 중에 드론 사용에 대한 최신 시나리오(불법 매립지 수색, 수역 및 숲 모니터링 등) 15개가 시험되었다. 사벨리에브 부총리는 사할린의 무인항공 산업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5개 도시의 시장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국제 간담회 진행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 전망을 논하기 위해 블라고웨센스크, 니즈니 노브고로드, 중화인민공화국의 헤이허, 주하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들의 시장들이 만남을 가졌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자오룽궈를 단장으로 사업 공동체 및 의료, 상품 및 식품 생산업체, 물류 회사의 대표들로 구성된 헤이허시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중국의 대표들은 지역의 관광 잠재력과 요리들의 특징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 및 의료, 요식업, 무인기,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제도 논의하고, 헤이허시의 의사들은 사할린주의 의료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7월 18일(목)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5개 도시의 시장들과 공식 만남이 이뤄진 가운데 그 밖의 문제들을 포함해 문화-관광 협력 발전을 논의했다

코르사코브, '극동의 주택가' 건설 착수

7월 15일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러시아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사몰레트' 그룹 회사가 '극동의 주택가들' 건설을 위해 기초석을 놓는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사할린의 심장' 주택단지는 총면적이 5만m²로 높이는 9층부터 18층의 아파트들이 건설된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오늘 우리는 '사할린의 심장' 주택단지 건설 기반시설에 타임캡슐을 놓았다. 이 기획의 명칭이 상징적인 것은 바로 여기서 극동지역 전체와 사할린주를 발전시킬 수천의 가구를 포함해 사할린의 차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건설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르사코브 지역은 사할린 산업발전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심해 항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산물 가공을 중심으로 하여 가공된 생선제품을 위한 유통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획들은 대통령과 연방 정부를 비롯해 사할린주의 경제발전예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산업의 중심지로서 코르사코브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곳에 필연적으로 대규모 주택건설을 시작하게 됐다. 이러한 모든 것은 현대화된 항만, 주택 건설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은 극동지역에서 사할린주를 생활하고, 일하기에 더욱 전망 높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진일보의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코르사코브 지역에 새로운 구역 건설에 대한 계획은 3년 전에 세워졌다. 그때 이 계획은 '에코폴리스'이라는 조건적 시행 명칭을 받아 기획 시행자들에게 높은 표준에 따라 현대적이고, 쾌적한 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임무를 설정했다. 2028년까지 예정된 첫 번째 건설 단계의 일환으로 '사몰레트'그룹은 1,035가구가 들어설 5만m²를 건설할 예정이며, 그중 145채 아파트는 임대주택이다. 2046년까지 이곳에는 46만 m²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주택단지 구역에는 6개의 유치원과 2개 학교, 주차장 건물, 스포츠 및 아동을 위한 운동장을 건설하고, 이외에도 주민들을 위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 가을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기획 시행에 대한 협약이 북극 및 극동개발공사와 체결되었다. 투자 규모는 658억 루블리가 넘는다 (사할린주 정부 제공).

트루트네브 부총리, 쿠릴열도 관광 매력 개발프로그램 준비 지시

러시아 연방 부총재이자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 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가 사할린 방문의 일환으로 7월12일에 이투루프섬에서 '쿠릴' 선도개발지역의 개발 현안과 러시아 연방 쿠릴열도에 대한 정책을 의제로 회의를 열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재는 "사할린주는 가장 아름다운 섬들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생생물과 원자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유리한 지리적 위치 덕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도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사할린주에는 투자기획에 따른 국가 지원책의 종합적 체계가 도입되었다. 2개 선도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정책과 쿠릴열도에서 조세 특혜정책은 '투자를 위한 할당량'구조로 작동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모든 특혜와 자연 및 자원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쿠릴열도는 극동 지역의 투자자들에게 훨씬 매력적이다. 사할린주에서는 국가 지원책으로 122개 투자기획이 실행되고 있어 협약에 따른 투자금액은 총3,640억 루블리에 달하며, 이 중 1,620억 루블리가 투입되었다. 39개 기업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8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언급했다.

국가지원으로 쿠릴열도에서 투자기획들을 32개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운데 '쿠릴' 선도개발지역에서는 8개의 투자기획이 실행되고 있으며, 조세제도 특혜를 통해 24개 투자기획들이 실행되고 있어 투자 유치 금액은 총 200억 루블리에 달하고, 2,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자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트루트네브 부총리, 쿠릴열도 관광 매력 개발프로그램 준비 지시

(1면의 계속)

회의에서 투자자들은 수산업, 주택 건설, 물류 및 운송 분야에 대한 신규 및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획들을 발표했다. 이곳 관광객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 속에 2023년에는 항공교통에 따른 여객 수송량이 역대 최고치였다. 쿠릴열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10만2천 명에 달해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이 쿠릴열도에서 관광 분야의 기획들을 실행하고 있다. 쿠나쉬르섬에서는 '쿠나쉬르 리조트호텔과 스파'호텔단지를 비롯해 '서프 투어' 서핑-캠핑가 건설되고 있고, 이투루프섬에 '기드로스트로이'회사그룹이 '얀키토' 호텔단지를 개장했다. 올해 이투루프에 '우타리'회사는 전망 좋은 풍경이 보이는 '카무이 코탄' 호텔을 개발해 건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파라무쉬르에 '에베코 호텔'회사의 호텔이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운송 및 물류 문제가 논의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지역 정부가 늘 노력하는 문제 중 하나는 쿠릴열도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척의 새로운 여객.화물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쿠릴열도행 추가 항공편을 도입했다. 우리는 '대기자 명단'이라는 특별서비스를 만들어 만약 승객이 선박이용권이나 항공이용권을 구입하지 못하면 일단 대기자 명단에 올린다. 며칠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티켓을 구하는 사람이 정해진 수보다 많을 때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추가 항공편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보장해주며, 관광객이 관광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섬들 중 어느 곳으로든 운송해준다. 이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쿠릴열도의 교통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쿠릴열도에서 선도개발지역 확대 정책의 가능성을 논한 가운데 사할린주 주변 도시들인 유즈노-쿠릴스크와 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에서 조성되고 있는 경제특구 내에서 선도개발지역 확대 방안의 가능성도 논의했다.

이러한 계획들을 고려한 법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승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또한 쿠릴열도 지역에 등록된 단체들에게 보험료 절감 방안도 검토되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연방 담당 부처에 쿠릴열도의 관광 매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사할린 해운회사의 연안무역 운송 보조금 지급구조와 유사하게 쿠릴열도에 건축자재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구조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사할린주한인회, 운영위 회의서 활동 보고

지난 7월 1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 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운영 위 회의가 열렸다. 운영위 위원 34명 중 회의에는 19명이 참석해 회의는 효력을 가졌다. 회의 의장으로는 협회 운영위 위원장인 준 알렉세이가 선발되었다.

회의에는 2/4분기 주한인협회의 사업보고, 하반기의 사업 계획 등 및 기타 문제를 논의했다.

주 한인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순옥 회장이 보고를 했다. 그에 따르면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 장려금 기획 일환으로 올해 11개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그중 '한국 교육과 사회'에 대한 학생 경시대회가 이미 실시되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는 계속 여러 요리교실과 공예 활동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봄과 초여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관광센터와 공동으로 '가정 - 보물의 섬'기획의 일환으로 3가지(동이나물, 고사리, 머위) 산나물 관련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주 한인협회에서는 3차례 김치를 담그기를 열어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보냈다. 보낸 김치가 인기가 많아 그 쪽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2/4분기에 가장 중요한 행사로는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모스크바 '러시아'전시-포럼장(상설 국민 경제 달성 박람회)에서 한인 문화와 풍습을 소개했다. '하늘' 타악기팀의 한민족 북공연과 사물놀이 공연, '토르나노' 스포츠클럽 태권도 선수들의 시범 공연이 좋았고, '뽀세'(왕만두) 요리교실과 뽀세 시식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하반기에는 '세대 간 연결, 전통의 이어줌'기획 일환으로 여러 지방에서 '한 가정에서'축제, 열린 씨름대회, 한민족 요리교실과 공예 활동교실을 펼칠 예정이다. 이 기획의 마감 행사로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장인들의 도시'박람회가 열린다.

주한인협회가 하반기에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는 8월 1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코스모스'경기장에

서 진행되는 광복절 기념행사라고 박순옥 회장이 밝혔다.

또한 8월에 진행되는 '오스트로와' 연방 청년포럼의 일환으로 주한인회는 '뽀세'청년축제의 주최자로 나선다고 전했다.

이날 사할린 주두마 임 유리 의원은 "현재 정세가 어려운 시기에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양 국가와 인도주의적, 문화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사할린한인들의 역사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언문·역사·동양학대학 학장인 임 엘비라 한국어 교수는 이날 '한국어교사 양성(초급)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임 학장은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이 기획으로 7월에 1차 연수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전했다. 2024-2025년 학기에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초급)을 따고 싶은 사람들은 7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신청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 학장이 밝혔다. 지원자들이 무료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비는 사할린 한국교육원을 통해 지원된다.

박순옥 회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앞으로 지방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며 이런 희망자를 많이 추천해달라고 지방 한인회장들에게 요청했다. 희망자 중에는 예전에 교육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정기 운영위 회의에 3번 이상 별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은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회의에서 위원이 자격이 박탈된다고 알려졌다.

사할린주한인협회는 다음달부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으로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사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 투표에서 극동연방관구 지역들 중 유일하게 상위 10위에 올라

7월 12일 사할린주가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에서 온라인 투표 결과 극동연방관구 지역들에서 유일하게 10위 안에 오르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 러시아 박람회장의 사할린'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전국 89개 행정자치지역들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전람회에 참가한 가운데 각 행정자치체들은 밝고, 다채로운 자체 성과들을 전시했다. 결과 11개 부문에서 우수 지역들이 결정됐다.

전람회 방문객들의 높은 평가는 사할린주 주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 사할린 지역의 전문가들은 매주 이곳에서 계몽적인 교육행사와 관광에 대한 퀴즈대회, 문화와 예술 분야의 강연을 이어갔다.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의 나탈리아 위르투오조와 회장이 붉은 루비 모양의 상패를 사할린 지역 대표자들에게 전달했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единственная из регионов ДФО вошла в топ-10 на выставке-форуме «Росс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10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форуме «Россия». Это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среди регионов ДФО,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Сахалин на ВДНХ».

Масштабная выставка проходит в Москве и объединила 89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На ней каждый субъект ярко и красочно представил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лучших определили в 11 номинациях.

Высокая оценка посетителей выставки - это результат работы все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исты региона еженедельно проводил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уристические викторины, лекции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татуэтку в виде красного руби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ю региона вручи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выставки «Россия» Наталья Виртуозова.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 소공원에서 여름행사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 소공원의 이번 여름행사가 박람회와 활동교실, 공연으로 시작되었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노나 라브리크 장관이 전했다.

벌써 10년간 체호브 책 박물관의 공간은 누구나 자신을 예술가로 느끼고, 자신의 견문을 시험해보며, 실제 말이 끄는 쌍두마차를 타 볼 수 있는 예술적 행사장으로 변모해왔다.

올해는 안톤 체호브가 사할린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인 1890년 7월 11일을 맞아 체호브 소공원 기념행사를 열었다.

밝고, 다채로운 '그림의 오솔길'이 열리고, 체호브 책 박물관의 전문가들과 러시아 화가 직업연맹의 회원인 나탈리아 돌리제와, '로스트' 예술단지의 활동가들, 러시아 화가연맹의 회원인 콘스탄틴 콜루파예프, 예카테리나 플로린스카야 화가 등이 진행하는 활동교실에 방문객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В Чеховском скве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ртовал новый сезон

Новый сезон в сквере Чех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ся с ярмарки,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концер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Уже десятый год пространство у музея книги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творческую площадку, на которой каждый может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художником, проверить свою эрудицию и даже совершить конную поездку в настоящем фаэтоне. В этом году открытие юбилейного Чеховского сквера пришлось на день, когда писатель в первый раз ступил на сахалинскую землю - 11 июля 1890 года.

Ярко и красочно прошло открытие «Живописной аллеи». Посетителей развлекал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член Профсоюзного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Наталья Дульцева, и резиденты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РОСТ», член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Константин Колупаев и художница Екатерина Флоринская.

פורонаيسك 출신의 한국 여가수, 새로운 영상 공개

פורонаيسك 출신의 한국 여가수 스웨틀라나 유지나(예명: 라나)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고 'פורонаيسك'의 별 텔레그램이 전했다.

경력에 따르면 스웨틀라나는 포로나이스크에서 태어나 학업을 이수하고, 기초 음악교육과 한국어를 공부했다. 이후 한국의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서 노래를 시작하여 이후 '히스(HiCC)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가수 라나는 러시아 출신으로서 첫 케이-팝(k-pop) 솔로 아이돌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22년에 라나는 '란란' 온라인 의류매장을 오픈하고, 모델로서 '에셋(ASSET)' 소속사에 합류하면서, 동시에 '손(Sorn: 태국 출신의 한국 여가수)'과 함께 '와일드 그룹' 음반사에서 노래 활동을 계속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евица из Поронайска выпустила новый клип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евица из Поронайска Светлана Юдина под сценическим именем Лана выпустила новый клип.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Звезда Поронайска».

Согласно ее биографии, девушка родилась и училась в Поронайске. Там она обучалась основам музык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сле училас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нгпунван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а петь как стажер в Thought Entertainment, а затем перешла в HiCC Entertainment.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Лана стала первым k-pop соло-ай돌ом из России.

В 2022 году Лана открыла свой онлайн-магазин одежды «Lan Lan» и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агентству ASSET в качестве модели. В то же время она развивала свою музыкальную карьеру, продолжая ее в лейбле WILD GROUP вместе с Sorn.

치하야만에서 13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수거

7월 13일(토) <러시아의 물> 전 러시아 활동의 일환으로 사할린의 치하야만 해안가 청소소를 위해 13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했다.

환경보호활동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마카로브 등 여러 지역들의 활동가들을 비롯해 '에코시스템(생태계)', '드비제니에 페르비흐(최고들의 활동)', '세레브란니흐(원로)'의 전 러시아 환경보호운동 사할린 지부의 자원봉사자들과 러시아 사회재단의 직원 및 러시아 철도협동조합 자원봉사자들, 러시아 기술대학의 '북극 팀'탐사대의 교사와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한인 사회 소식

어업인의 날 맞아 3개 한인 단체
단합을 위해 바닷가에서 야유회 열려

7월의 둘째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어업인의 날로 기념하는데 이날은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낚시 애호가들도 즐겨 기념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는 이날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에서는 최근 12년간 이날을 맞아 바닷가에 가서 야유회를 열고 있다. "처음엔 노인정 어르신들만 모시고 바닷가에 갔었는데 최근에는 단체 회원들의 친목을 위한 야유회를 갖는다. 이번 야유회도 전과 같았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지난 14일(일) 아니와 지역 타라나이-말리놉카 마을 사이 해변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림종환)의 주최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이번에 이 시한인회와 두 단체 -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와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천영근)가 함께 하여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어류학자이자 지역 연구자인 마케예브 세르게이 전문가로부터 사할린의 자연과 남부 사할린의 관광지에 대한 특강을 들었



다. 이날 바닷가의 제왕, 인어, 해적, 해파리 등의 복장을 한 사람들의 가장 연극도 열렸다. 야유회를 위해 여러가지 준비한 놀이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야외에 놀러 온 사람들은 이날 춤도 추고, 즐거운 기분과 화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주최 측에서는 이날 맛있는 우하 (러시아식 생선탕)과 플로브(우즈베크식 볶음밥)을 준비했다.

또한 야유회 찾아온 어르신들은 이날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기념사진을 찍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제공)

사할린주 한인협회, 아니와 해변에서
제7회 '한 가정에서'축제 펼쳐

지난 14일(일) 아니와 해변에서 두 가지 행사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한 가정에서'축제를 함께 진행했다. 어업인의 날 행사는 아니와 시행정부가, 제7회 '한 가정에서'축제는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개최하였다.

축제는 러시아와 한민족 노래와 춤 공연으로 이루어졌는데 한인협회 측에서는 '아리랑'무용단과 '희망'무용단의 출연, 아마추어 가수인 오 블라디미르와 김 왜체슬라브의 노래로 무대를 장식했고, '하늘'타악기팀의 북 공연, '토르나도'클럽 태권도 시범 공연을 선사해 행사를 찾아온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이날 뻥세(왕만두) 요리교실, 한글 쓰기, 활동교실들도 역시 인기가 많았다. 아니와시 행정부에 따



르면 이날 아니와 피서지를 찾아온 관객들은 뻥세 200개를 시식할 수 있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된 축제로 시행정부가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 감사를 표명했다.

(본사 기자)

(사진: 아니와 시행정부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 도종환

견우 직녀도 이날 만은 만나게 하는 칠석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땅에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해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 입혔네.
당신 손수 베틀로 짠 옷가지 몇 벌 이웃께 나눠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내 남아 밭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칠석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상봉한 거지요. 기쁨의 눈물인 겁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내린다면 이제 다시 일년 내내 보지 못할 테니, 이제부터 내리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겠지요. 올 칠석날 역시 비가 내렸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 번 만난다는 7월 7일. 아니나 다를까. 퍼붓더군요. 대한민국에서의 7월은 이제 내내 비가 그치지 않는, 말 그대로 '우기(雨期)'에 가깝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랑 이야기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이 유한한 데 결국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이별을 맞게 되겠지요. 견우와 직녀 설화는 그래서인지 7월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둘의 딱한 사정을 안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몸을 잇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줬다니, 설화가 지닌 이야기의 힘이 강렬하네요. 은하수가 떠나 하니 대낮은 아닐 테고, 저녁 무렵부터 새벽까지의 시간. '고작 일년에 한 번을 이렇게 만나야 하다니' 이러면서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야' 이러는 저를 발견합니다. 실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사별이란 다시는 못 볼 끔찍한 비극일 테니.

중국에서 출발한 견우와 직녀 설화가 7월 장마철을 맞아 한 달 내내 대한민국을 뒹랑코리하게 만듭니다. 외출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이상하리만치 비가 내리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져요. 우산을 펼치는 걸 귀찮아 하는 스타일이니,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면 저는 도로 외출을 하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버립니다. 피부에 닿는 에어컨 바람의 냉랭함과 베란다 창문을 때려대는 빗소리를 듣고 음악을 크게 듣지요. 아내와 함께. 아내와 저는 요즘 트로트 가수 '양지은' '박지현' 가수에 푹 빠져 있거든요. 둘 다 뒤늦게 트로트에 입문한 케이스입니다. 3년 전 즈 트롯 오디션이 굉장했었나 본데, 그 때는 시큰둥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트로트 관련 일도 들어왔었는데, 거절한 적 있지요. 돌이켜보니 후회가 밀려오네요. 우리 부부는 이제서야 OTT 웨이브(Wavve) 통해서 시쳇말로 아주 '뽕'을 뽑는 중입니다. 한 때 무시했던 음악적 장르가 진지한 노랫말로 거듭나,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다니! 칸쇼네와 샹송, 프로그램 리시브 룩, 재즈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장르였다는 걸 지금이나마 깨닫게 되어 다행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애달픈 마음을 음미했다면 저라도 눈물을 흘리며 곡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과 더욱 소중한 그 애뜻한 시간 즐기세요!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맞아 본사는 사진공쿠르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사할린 한인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사진.

- 출품수: 3점 이상
- 사진규격: 1,000x1600 픽셀의 JPG/JPEG 형식 파일 (5mb 이하), RGB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은 2024년 9월 27일.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전시. 사진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 5 МБ, цве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27 сентября 2024 г. .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공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공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공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РООСК подвели итог работы за 2-ой квартал и озвучили планы на этот год

13 июл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19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из 34. Заседание ве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Алексей Чун.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за 2 квартал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ланы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вопрос по составу правления, обсужден вопрос об отношениях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КНДР, представлена программа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2024-2025 г.

Отчитываясь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за 2-ой квартал,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сообщила, чт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гранту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идут по плану. С марта по ноябрь запланировано 11 мероприятий. Из них проведена Олимпиада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Корея: образование и общество», различ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икороссия» РООСК совместно с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ровели в этом году три мероприятия (калужница, папоротник, лопух). Трижды делали и отправляли в зону СВО кимчи, одно из любимых блюд сахалинце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акже в фестивале «Чеховские пельмени».

Самое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 это участие в выставке-форуме «Россия»,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на ВДНХ в Москве. Организация сумела достойно представить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искусство,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и.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янс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луба «Торнадо» и группы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ыль» выступили в павиль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на главной сцене выставки.

Помимо этого организация участвовала и в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рамках грантового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планируются выезды в районы, где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Открытый чемпионат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ырым», состоится ряд мастер-классов, с 21 июля начнет работу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для молодежи. Завершится проект грандиозной «Ярмарки мастеров».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года – празднован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состоится 17 август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РООСК также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Острова» станет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здника «Пянсе».

Пак Сун Ок сообщила, что со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вновь начнется работа по программе «Здоровье» дл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на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ФИ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рейский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фонд).

На правлении было также озвучено, что РООСК являетс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этому все ее гуманитар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с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должны быть сохранены. Было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именно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ыполняют роль моста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По вопросу программ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ыступи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Лим Эльвира.

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этот проек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ахГУ совместно с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В этом году грант был вновь одобре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 с 22 июля по 7 сентября 2024 г. (набор в количестве 10 человек), преимущество будет отдано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из районов. Заявитель должен быть гражданином РФ, иметь среднее специальное или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желающий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очно-заочном формате с 1 октября 2024 г. по июнь 2025 г. Успешно окончившие данный курс получат диплом СахГ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ца.

Виктория БЯ

На Анивском пляж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В воскресенье, 14 июля,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празднованием Дня рыбака на Анивском пляж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шел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айона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организации порадовали гостей своими вокальными, танцевальными и спортивными номерами. Танцевальное мастерств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коллективы «Ариран» и «Химан», заряд энергии подарили барабанщики из группы «Ханыль», боевое мастерство показали тхэквондисты клуба «Торнадо»,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постарались подарить певцы при ККЦ.

Настоящим открытием для всех стал бесплат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Гости также смогли погрузиться в мир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узнав о его особенностях и секретах мастерства. Помимо всего прочего в этот ден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бесплатно угощали всех желающих традиционными пянсе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сего было роздано более 200 пирожков, приготовленных на пару.



(Фот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Три организации вместе отметили День рыбака

Уже 12 л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ежегодно празднует День Рыбака на берегу моря. Это дань истинных сахалинцев рыбацкому краю. Вначал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в этот день выезжали на природу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Подопечного Клуб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День рыбака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всех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оддерживающих соратников.

В этот раз к членам ЮСМООК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еще две организации –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и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По сведения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более ста человек весело провели время в живописном месте, на берегу моря в районе с. с. Таранай - Малиновка.

«Традиционно готовим фирменную душистую уху из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горбуши и палтуса, угощаем ею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На этот раз угощали всех не только ухой, но и вкуснейшим пловом, партнеры его утром рано сварили и привезли на стан.

Состоялось и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е шествие Дядьки Черномора (Че Сан Ду), владыки морей, покровителя рыбаков и мореходов, в окружении свиты - прекрасных русалок, медуз, пиратов и рыбаков в тельняшках (группа Им Виктории «Сахалин Тим»), задав тон празднику. Проводим и различные состязания на вылов рыбы, добычу ракушек,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 сообщ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В этот раз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праздника выступил ихтиолог, краевед, исследователь Сергей Макеев, который поделился рассказом о лососевых, 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о природе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или, что все весело общались, пели, танцевали, в общем, чудесно провели время.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создавал певец и музыкант Петр Кан.

А еще в этот день ЮСМООК при-

соединилась к протесту против включения шахты Садо Япония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На этой шахте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труд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Движение протеста проходит в Корею, его поддерживали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т Москвы д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ОК)

В Ансане состоялся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преодолевая границы»

13 июля 2024 года в Цент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г. Ан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шёл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преодолевая границы»,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Обществом поддержки корё-сарам «Номо» и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в том числе в странах СНГ, прилагают огромные усилия сохранить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с гордостью называют себя «корейцами», но, возвращаясь в Корею, они вдруг осознают себя «иностранцами». То ли потому, что чувствуют разницу культур с местным обществом, то ли потому, что сами местные относятся к нам как к иностранцам. Поэтому, как неудивительно, этот вопрос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то я?» становится ещё 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м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именно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ад этими вопросами размышля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усскоязычной молодежи вместе с корейцам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Форум начался с лекции директора Музея истории миграции Ким Сан Еля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 об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Далее следовала панельная дискуссия, на которой Огай Екатерина (Кенджу, корё-сарам), Бек Елена (Сеул,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янка), а также корейцы из Японии и Китая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 пониманием вопроса «Кто я?», который тесно связан с поиском смысла жизни и формированием идентичности.



Затем в малых группах молодёжь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обсуждала вопросы «Что бы я изменил в политике Кореи?», «Что было самым тяжёлым в начале и как я это преодолел?» и другое. Форум закончился весёлым танцевальным флешмобом от Big fingers (руководитель Вячеслав Огай).

Надеемся, что это проведение таких встреч станет традиционным и поможет обрести силу и веру, что общими усилиями мы можем создавать лучшее будущее для всех корейцев,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откуда они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отвергает слушания по импичменту Юн Сок Ёлю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не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ях по импичменту главе государства, инициированных оппозицией. 15 июн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звал такие слушания «анти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и и противозаконными».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гла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и других оппозиционных партий, входящих в парлам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и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е, одобрили предложение о слушаниях. Провод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опротестовала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как незаконное. Тем не менее, слушания назначены на 19 и 26 июля. Онлайн-петиция, размещённая 20 июня на сайт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с призывом к отставке Юн Сок Ёля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собрала более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петиция, собравшая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более 50 тысяч подписей, направляетс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в профильный парлам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Пять регионов РК объявлены особыми зонами бедствия

15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бъявил пять регионов в центре и на юге страны,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роливных дождей, особыми зонами бедствия. Это уезд Ёнд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город Нонсан и уезд Сочх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уезд Ванчжу-гу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и уезд Ёнг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Как сообщ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им Су Гён, в этих регионах завершён подсчёт ущерба, нанесённого дождям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раб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в других пострадавших регионах, список особых зон бедствия может увеличиться.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порядился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завершить оценку ущерба, нанесённого всем регионам страны. Он призвал сотрудни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тому, что дожди могут продолжиться. Статус особых зон бедствия предполагает оказание пострадавшим регионам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из бюджет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собий и льгот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включая отсрочку по кредитам и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РК призывает Японию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итязаний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РК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выразила решительный протест Японии, которая подтвердила сво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итязания на принадлежании РК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12 июл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Японии была утверждена «Белая книга по обороне» за 2024 год. В ней говорится, в частности, что «Такэсима» (японское название Токто)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япо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н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проблема остаётся нерешённой. Токто — это территория РК исторически, географически и согласн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аву.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итязания Японии нарушают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РК, —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Им Су Сук. Японии следует осознать, что её заявления не помогают построению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будущее, — добавил он.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плата в РК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т 10 тыс. вон в час

12 июля комиссия п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х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рофсоюзов и трудящихс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установить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в 2025 году в размере 10.030 вон (7,28 доллара) в час. Это на 1,7% больше, чем в текущем год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плата составит в 2025 году 2 млн 100 тыс. вон (1.525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при 40-часовой рабочей неделе. Минимальная оплата труда превысит 10 тысяч вон в час впервы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 1988 года она определяется ежегодно. Повышение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платы затронет не менее трёх миллионов работающих южнокорей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должно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ть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плату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не позднее 5 августа.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 работающих 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обоснованные возражения.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ризнаны справедливыми, комиссия должна будет вернуться к рассмотрению ставки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платы. До сих пор подобных прецедентов не было.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С 1 по 3 августа в культурно-выставочном комплексе Dongdaemun Design Plaza (DDP)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под названием DDP - Design Vibe.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6 июля в фонде Seoul Design Foundation. Темой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 «городской пикник».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йдут концерты, выставки и ярмарки. Гости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различные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 пиво, взять напрокат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икника.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фестиваля, его целью яв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а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Район, где расположен DDP, является местом скопления рынков и торговых центров, традиционно привлекающих тысячи туристов.

RKI

Москва — Сеул: сохранять «безопасную линию»

Сеул, 10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Россия надеется сохранить «безопасную линию» в сво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работать над улучшением связей, несмотря на нынешнее похолодание, заявил ее глав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 Сеуле.

Посол России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выступил с заявлением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 Сеуле, посвященном общей истории двух стран. Он отметил, что Россия всегда была соседом, который действовал с учетом интересов Южной Кореи. «Наша страна была конструктивной силой, искрен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й в автономии 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Росси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водила эту линию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фактиче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 заявил Зиновьев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посвященной 140-летию подписания первого двустороннего договора. «Россия не действовала против интересов Кореи, а, напротив, пыталась защитить их всеми возможными способами», — заявил он.

Заявления Зиновьева прозвучали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Москвой остаются напряженными из-за актив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ри это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воен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Дву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еще больше охладились после недавнего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Пхеньян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Ёном, в ходе которых они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обязывающий обе стороны оказывать взаимную военную

помощь в случае вооруженного нападения на любую из сторон.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наши отношения сохраняют безопасные линии и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в лучшем направлении», — сказал он, добавив, что прилагае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создания позитивной динамики. Зиновьев обвинил Запад в «дискредитации» его страны неправильным образом, как это уже случалось в истории, призвав к «объективному» взгляду на настоящее ради будущего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Мы становимся свидетелями попыток дискредитировать Россию, представить ее действия в ложном свете», — заявил он, подтвердив впоследствии, что имел в виду западные СМИ и политиков. «Когда-нибудь в будущем мы сможем увидеть более объективный взгляд на действия России, как в прошлом, так и в настоящем», — сказал Зиновьев.

На выставк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совместно с посольством России в Сеуле, представлены истор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и архивы,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века, в том числе репродукции картин Чан Сын Ёпа, изв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эпохи династии Чосон (1392-1910). Две картины,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публике, являются частью е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торое король Чосон Кочжон подарил тогдашнему россий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у Николаю II на его коронацию в 1896 году. Выставка проходит с 8 июля и продлится по 31 августа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музее Аппенцеллерской знати в центре Сеула.

У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но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визу Ф-4

Сеул, 15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ставило новую инициативу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лиц,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долгосрочный уход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путем расширения прав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рамках этого плана будет введена новая категория трудовых виз, специ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нная для лиц,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уход, и предназначенная, в частност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 стране.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постепенно сокращать количество пожилых людей, закрепленных за каждым лицом, осуществляющим уход,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услуг долгосрочного ух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ъявили о новой политике, позволяющей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работать в службах по уходу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Эта инициатива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более широких усилий по решению растущей нехватки лиц,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долгосрочный уход,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нация становится обществом пожилых людей. Теперь как нынешние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так и выпускники будут иметь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сиделок. Выпускники, получившие работу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изы E-7,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работать по 88 профессиям, определенным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ализует пилот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зволяющую до 400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ежегодно получать двухлетние визы для работы в качестве лиц,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ух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также объявило о плане постепенного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а получателей, за которых отвечает каждый сестринский работник,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услуг долгосрочного ухода. Соотношение жителей и лиц,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уход, в учреждениях сестринского ухода сократится с нынешних 2,3 до 2,1, начиная с 2025 года. Учитывая потенциальную нехватку персонала,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хранит существующий стандарт в 2,3 жителя на одного опекуна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из-за рубежа с визами H-2,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квалификацию сиделок, будут иметь право перейти на визы F-4, позволяющие проживать в стране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Тем времен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привлечь около 100 сиделок с Филиппин в Сеул для участия в шестимесячной пилотной программе,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облегчение бремени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для молодых работающих родителей и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сниж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У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не осталось белых пятен на карте мира

Сеул, 14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Около шести из 10 потребителей по всему миру посетил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дин корейский ресторан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 средней частотой 1,7 посещения в месяц, показал опрос.

Согласно ежегодному опросу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родвижения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64,6 процента из 9000 респондент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59 лет, проживающих в 18 городах по всему миру, посещали корейский ресторан. Опрос проводилс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 с августа по октябрь 2023 года — в таких городах, как Нью-Йорк, Париж, Лондон, Шанхай, Токио и Бангкок. Средний процент посетителей не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корейских ресторанах составил 52,3 процента в Океании,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е 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что на 2,1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Юг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84,6 процента), за ней следует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74,7 процента), Северная Америка (58,6 процента) и Европа (46,9 процента), причем во всех этих странах наблюдалось небольшое снижение.

Что касается ежемесячной частоты посещений корейских ресторанов, 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средний пока-

затель был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2,2 раза), за ней следуют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1,7 раза) и Океания,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и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по 1,5 раза). В среднем североамериканцы посещали ресторан 1,4 раза в месяц, в то время как европейцы — 1,2 раза в месяц. Также было заметно изменение цели посещения корейских ресторанов. Доля некорейцев, посещающих корейские рестораны для «обычных приемов пищи», составила 49 процентов в 2023 году, что на 2,8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больше, чем 46,2 процента в 2022 году.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90,4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довольны корейскими ресторанами, что на 0,5 процентного пункт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в то время как 83 процента заявили, что порекомендовали бы корейские рестораны другим. Доля некорейцев, желающих вернуться в корейские рестораны, составила 86,7 процента. По регионам Юг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с 91,9 процента, за ней следуют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с 85,9 процента, Европа с 84,6 процента, Океания,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и Ближний Восток с 84,4 процента и Северная Америка с 84,3 процента.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тили первый в России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Запуск водородного полиго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значает, что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новой энергетики становятся реальностью. С помощью водородного топлива будут снабжать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отдален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обеспечивать работ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тяжелой техники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топливе. Технологии, апробированные на Сахалине, будут тиражировать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сей Росс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ыбрало Сахалин пилот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острове создан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Восточный водородный кластер, и полигон – часть этого крупного проекта. Полигон базируе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го бюро средств автоматизации мор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КБ С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АН.

– Сегодня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в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запускаем в работу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Наш регион становится местом для отработки и внедрения водо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энергетике и на транспорте. Желаю успехов нашему проекту и приглашаю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водородной отрасли к нам. Ведь параллельно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водорода под него буде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научная база в нашем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лагодаря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одородных энергоустановок будут решаться вопросы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изолирова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север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Это позволит уйти от дизельной генерации и ввести новые гибридные установки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ивать водородный транспорт: автомобильн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и морской.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мест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омышлен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нажали символическую кнопку на трибуне. В этот момент первый водород поступил в магистральную систему, и заработал электролизер мощностью 5 кубометров в час. Это первый этап, на втором –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основная артерия мощностью 30 кубометров в час.

На площадке разместились системы хранения произведенного водорода, заправочный комплекс и солнечные панели, которые в большой степени обеспечивают энергоснабжение полигона. Участникам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работу заправочной станции, транспорта и беспилотника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опливных элементах.

Партнеро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создании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выступает один из ведущих вузов страны – Московский физико-техн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МФТИ). Поддержку проекту оказали Минпромторг, Минэнерго, Минобрнауки и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а также крупные промышленные и инжиниринговые компании (ГК «Росатом», ПАО «РусГидро», Группа «ГАЗ», АФК «Система», ГК «ИнЭнерджи», АО «Урал» и другие).

– С учетом огромных размеров нашей страны очень важно иметь компетенции по всем низкоуглеродным и безуглерод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Водород обеспечивает наибольшую энергетическу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абсолютную экологическ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 целому ряду параметров он превосходит другие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сем, кто участвовал с нами в этом проекте –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изнес-партнерам и, конечно,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алерию Игоревичу Лимаренко, без воли, энерги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а этот проект бы не состоялся. Сегодня мы сделали первый и самый важный шаг. Речь идет не о науке и кабинетных разработках, а о конкретном применени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 отметил ректор Московского физико-техн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Дмитрий Ливанов.

– В мире водородная энергетика – самый быстро растущий сегмент среди всех в тематик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а. Это формирует мощный тренд на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и бизнес-решений в этой сфере. В России ключевой регион – фактически колыбель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 э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проект даст хороший импульс для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индустрии в России и будем рады принять в нем участие, – доб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по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е ООО «Русатом КИП» Антон Москвин.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три комплекта оборудования уедут в села Новиков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Огоньк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а также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Там он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илотную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качестве систем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различных энергоизолированных объектов. К примеру, в Огоньках водородное топливо будет питать труднодоступную вышку сотовой связи.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более 400 – в стране.

Новейш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будет апробировать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ходить здесь сертификацию и готовиться к серийному производству. Самые эффек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буду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и всей России.

Кроме того, существуют опытные модели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опливных элементах. Две из них – Урал и ГАЗель –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полиго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атомом, РЖД и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ом планируется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запустить водородные поезда. 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мпозитным дивизионом

Росатома есть план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легких суд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водородных энергосистем.

В Корсакове дан старт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вартала»

15 июл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закладка первого камн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вартала» от одного из крупн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застройщиков - ГК «Самолет». Жилой комплекс «Сердце Сахалина»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высоток от 9 до 18 этажей общей площадью 5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здесь построят свыше тысячи квартир.

– Сегодня мы закладываем капсулу в осн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Сердце Сахалина». Название проекта символичное,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отсюда пой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жилья для тысяч семей и новых поколений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нашу область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целом. Сегодня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становится центро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а. Мы создаем глубоководный морской порт, здесь будет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а рыбопереработка и появится центр дистрибуци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Эти мо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бизнеса, готового вкладываться в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умеется, наращивание значимост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ак промышленного центра, дел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запуск здесь и масштаб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Эти вещи, модернизация порт 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должны идти параллельно. Ведь все это – еще один шаг к тому, чтобы сделать нашу область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ля жизни и работы,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лан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явились три года назад. Тогда проект получил условное название «Экополис», а перед проектировщиками поставили задачу создать современный и комфортный жилой масси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ысокими стандартами. Так,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этап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й рассчитан до конца 2028 года, группа «Самолет» возведет 5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 1035 квартир, из них 145 будут арендными жильем. Всего до 2046 года здесь появится 46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также возведут шесть детских садов, две школы, многоуровневые паркинги, спортивные и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Кроме того, для жильцов появится комфортная среда для прогулок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и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мэр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бербанка Андрей Черкашин и топ-менеджмент группы «Самолет».

Соглашение 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осенью 2023 года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 Благодаря отраслевым строите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действующим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ах,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сформировался спрос на первичное жилье. Строительная отрасл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астёт быстрее, чем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По запущенной в 2023 году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артал» за 10 лет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2 млн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для 65 тысяч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Эта программа повышает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позволяет молод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оставаться здесь жить, учиться, работать, строить семьи. Проект «Сердце Сахалина» в Корсакове стал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артал», здесь будет не только построено жилье, но и создана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подчеркну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Гаджимагомед Гусейнов

–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о соглашению, которое мы подписали с инвестором осенью 2023 года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Объем вложений превысит 65,8 млрд рублей. В февр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девелопер получил разрешение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разу приступил к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м работам на площадк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тартует нулевой цик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поэтапным. Это одна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строек в регионе,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го режима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Благодаря мер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резидент ТОР «Сахалин» получил площадки, которы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комплексной застройки, налоговые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льготы, в том числе возможность обеспечения объектам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ол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проекта на всех этапах его реализации», – добавила директор КРДВ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Мария Гришкинкова.

Отметим, в феврале 2024 года девелопер получил разрешение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ердца Сахалина», весной стартовали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 площадк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тартуют работы нулевого цикла.

Юрий Трутнев поручил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ходясь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провёл совещание о текущем развитии ТОР «Курилы», режим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РФ).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это не только красивейшая островная территория, но и регион, богатый водными биологическими и сырьевыми ресурсами. Благодаря выгодному географическому положению он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о странами АТР. В области внедрена комплексная система ме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Действуют две ТОР,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налоговый режим на Курилах, работает механизм «квоты в обмен на инвестиции».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 учётом всех преференций, природного и ресурс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это наи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для инвесторов регио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применением ме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122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а с общим объёмом инвестиций по соглашениям порядка 364 млрд рублей, из которых 162 млрд уже вложено.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39 предприятий, создано более 8 тысяч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 сказал Юрий Трутнев.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реализуют 32 компании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ой – в ТОР «Курилы» (8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го налогового режима (24 инвестпроекта). Объём привлечё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ляет 20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но 2,8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совещании инвесторы представили как новые, так и уже реализующиеся проекты в сферах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логистики и транспорта.

Фиксируется рост числа туристов. В 2023 году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достиг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аксимума по авиасообщению.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посетили 10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сё больше инвесторов реализуют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На Кунашире построены гостевой комплекс «Отель Кунашир Резорт и СПА», сёрфинг-лагерь «Сёрф тур», на Итурупе ГК «Гидрострой» открыла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Янкито». В этом году на Итурупе «Утари» введё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идовой отель «Камуй Котан». На Парамушире в 2025 году откроется гостиница компании «Отель Эбеко».

Обсуждались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Один из вопросов, над которым постоянно работа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 это повы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 нас появились два новы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на, введ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йсы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Мы создали специальный сервис «Лист ожидания». Если люди не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билет на судно или на самолет, они становятся в лист ожидания.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мы решаем этот вопрос, и когда видим, что объём заявок достигает определе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тави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йс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арантируем для инвесторов, что туристы, если они приобрели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утевку, доведём на любой из островов. Помогает этот сервис решить вопрос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жда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ширения режима ТОР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том числе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режим ТОР в границах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созданн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Курильского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конопроект, учитывающий данную инициативу,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проходит согласовани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и.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варианты снижения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для организаци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Юрий Трутнев поручил ответственным федер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м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а также разработать механизм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доставки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по аналогии с механизмом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каботажных перевозок по СМП.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жемчужина в области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екты начались, строятся очень красивые гостиницы, мы только что в одной из них были. Но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Надо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Минэкономики,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ужно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притягательности для людей, потому что острова замечательные. Но человек, планируя свой отпуск, а тем более решаясь на поездку за много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он задаст себе вопрос, чем он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каждый день. И если мы скажем, что вот сегодня ты поедешь ловить тунца или палтуса, завтра можешь нырнуть там и достать со дна трепанга или гребешка, послезавтра подняться по тропинке на вулкан, потом полежать в горячих источниках и так далее, то немного мест, где встречается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Если для человека поездка станет сплошным приключением, то я уверен в том, что люди поедут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потому что места очень красивые, потому что это важная часть нашей страны. 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развиваются. И каких-то сверхусилий прилагать со стороны федер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е надо. Здесь строятся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и рыбопродуктовые заводы, и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это хорошая работа», – подвёл итоги совещания Юрий Трутне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4년 차세대 동포 2천 명 모국 방문

재외동포청, 총 6회 하계 모국 연수... 역대 최대 규모, 인천에서 개막 이기철 청장, "차세대 정체성 함양과 한국의 발전상 이해 기회 제공"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상 이해를 통해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주최하는 '2024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7.15. 인천(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2024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총 8회에 걸쳐 각 6박 7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6차례의 하계(7월~8월) 연수에는 75개국 1,800여 명의 청소년, 대학생이 참여한다.

동포청은 제1차 재외동포기본계획(24.1.30)에 따라 2024년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확대의 원년으로 삼아, 올해 2,000명 초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철 청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식민지 지배의 역경과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유럽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상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의미 있는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한국의 발전상을 재외 한글학교에서 교육함으로써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를 통해 우리 차세대 동포들이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청장은 한국 발전에 밑거름이 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번 모국연수를 통해 차세대 동포들도 세계시민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민주주의 연대 의식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동포청은 이번 모국 연수에 참여할 차세대 동포들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동포 청소년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DDP, 남산타워, 코엑스, 롯데월드타워를 탐방하고, 인천 소재 삼성바이오닉스, 한국GM 등을 방문하게 된다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월정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고, 근대 재외동포 이민 역사의 출발점인 인천에서 개항장 탐방을 통해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인천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같은 또래인 국내 청소년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재외동포청 제공)

15일, 16일,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협회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NO" 1인 시위 릴레이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회장 권경석)

"러시아도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반대"

(사)아리랑연합회와 국내의 사할린동포사회가 지난달 22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전개했다.

15일과 16일 러시아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협회(회장 김태성)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반대" 1인 시위 릴레이를 2차례 개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권경석 회장)는 '김포통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15주년 음악회'가 개최되는 김포에서부터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반대"하는 1인 시위 릴레이를 시작했다.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은 12일 (사)아리랑연합회 기미양 서무총장과 함께 유네스코 한국본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권회장은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남사할린으로 끌려와서, 다시 일본땅으로 강제연행 되어 '이중징용'을 당했다. 다행히 돌아온 사람들 중 다수는 다시 일본 나가사키 원폭 투하후 도시 재건 사업에 맨몸으로 내몰려서 죽거나 간신히 일부만 돌아왔다. 이렇게 '삼중징용'을 당한 반인권적 장소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역을 숨겼다. 제2의 군함도가 되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어서 러시아도 조선인 강제노역 숨기는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사할린동포회 김태성 회장(1959년생)은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다. 1943년 충청도 논산에서 우리 아버지를 사할린에 강제징용으로 끌고가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전쟁이 끝나자 우리 조선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일본은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안고 지네들만 고향으로 돌아갔다. 누구 때문에 왜 우리가 사할린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벌써 80년이 흘렀다. 나도 이제는 따뜻한 조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5명의 자식과 9명의 손주들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국악 신문 제공)



이어 "일본은 양심적 책임은 커녕 반성도 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만 내고 있다. 아직도 러시아에다 쿠릴 반도를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70만명 관광객이 방문하는 군함도가 조선인 강제노역을 숨기고 세계유산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 사도광산에서 숨겨간 조선인을 감추고 세계유산 신청하는 것부터 유네스코 평화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는 김포사할린동포회(6월 22일), 파주사할린동포회(6월 25일), 양주사할린동포회(6월 28일), 사할린동포회(6월 29일), 안산사할린동포회(6월 30일, 7월 1일), 원주사할린동포회(7월 2일), 아산사할린동포회(7월 3일), 인천사할린동포회(7월 4일), 오산사할린동포회(7월 5일), 부산사할린동포회(7월 6일), 인천검단사할린동포회(7월 7일), 파주시 사할린영주귀국협회(7월 13일)에 이어 러시아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협회가 15일 16일 모스크바에서 2차례 1인 시위를 개최했다.

카자흐스탄에서 '2024 한국어 말하기 · 쓰기 대회' 열려

아스타나, 알마티 등 9개 지역서 40여 명 참가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 원장 구본철)은 7월 12일 '2024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아스타나·알마티·악토베·섬켄트·파블로다르 등 카자흐스탄 9개 지역에서 40여 명이 참가했다.

말하기 대회 주제는 ▲내가 가장 멋있었던 순간 ▲내가 경험한 특별한 한국문화 등 두 가지였으며, 지원자들은 이 중 하나를 골라 원고를 작성하고 낭독했다. 최종심사 결과, 참가자 중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쓰기 대회 주제는 ▲한국어를 배우며 얻은 것 ▲한국의 첫인상과 이미지 등 두 가지였으며, 이 중 한 가지를 택해 원고를 작성한 지원자 중 우수자를 선발했다.

말하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예세르케노바 마디나는 '내가 경험한 특별한 한국문화'를 주제로 스스로의 삶에 대해 발표해 심사위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말하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에게는 세종학당의 최종심사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될 말하기 대회 결선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올해 10월 예정된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연수에 참여할 기회도 얻는다.

그 외에도 말하기·쓰기 대회에서 3등 이내에 든 참가자들은 블루투스 스피커 및 헤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부상으로 받았다. 대회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은 참가상과 함께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문구세트를 상품으로 받았다.

구본철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은 "먼저 한국 방문의 기회를 얻게 된 말하기 대회 우수자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라며, "이번 대회에도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했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지속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선 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 동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안산시 디아스포라 청년포럼 열려

고려인 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는 지난 7월13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선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주제로 디아스포라 청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청년포럼은 한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너머와 재외동포청, 대한고려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한 동포를 포함, 다양한 국가에서 온 동포 청년들과 관련 학계 및 업계에 종사하는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동아시아 재외동포들의 한인사회 형성에 대한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그는 "고려인 선조들은 일제 시기에 목숨을 건 희생과 독립자금 조달, 외교 공관 건립 등 다방면에서 독립을 위해 노력했고, 전쟁 후에도 공장과 경기장을 건설해 대한민국에 기부했다"며, "(여러분의) 부모와 조부모의 공헌 덕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청년 토크에는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는 고려인 후손 오예카테리나 씨, 사할린 동포 후손으로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백봉순 씨, 이주인권 연구활동가로 일하는 중국 동포 3세 박동찬 경계인의류소리연구소장, 서울대 대학원에서 건설환경공학을 공부하는 재일동포 조기안 씨 등이 참여했다.

조기안 씨는 "일본에서 창씨개명 강요와 조선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었지만 국적과 이름을 바꾸지 않았



사단법인 '너머', 재외동포청 공동주최로 열린 2024 디아스포라 청년포럼에서 동포청년들이 청년토크를 진행하는 모습.

다. 일본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모국에 오니까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며 "그래서 국적보다는 동포라는 정체성을 갖고 국경을 넘는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동찬 씨는 "최근 이념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디아스포라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두루 경험한 평화체제에 기여하는 마중물이다. 또한, 정체성 혼란은 동포가 겪는 통과 의례로, 그 애매함을 정체성으로 정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주제로 조별 토론이 진행됐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올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 비자 문제점 개선, 문화차이 극복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대규모 청소 결과 1.65km에 달하는 치하야만 전 해안 구역을 청소해 2.5m³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된 쓰레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휴가객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졌음을 보여주었다.

대청소와 병행하여 '북극 팀'탐사대의 대학생들은 일련의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활동 참가자들에게는 이반-차이(분홍 바늘꽃)의 채취와 차로 만드는 법, 성장하는 지역이 이반-차이의 유일한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또한 유해한 물질들에 대한 향후 과학적 연구를 위해 토양 샘플을 채취했다.

대학생들은 자체 연구 결과를 환경보호단체들과 '최고들의 활동'그룹과 공유하기로 했다.

Более 130 волонтеров очистили бухту Тихую от мусора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13 июля,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Вода России» более 130 добровольцев объединили свои силы для очистки береговой линии бухты Тихой на Сахалине.

В экологической инициатив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ктивисты из разли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инского и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включая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Экосистема»,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сотрудников Соци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ссии, кооперативных волонтеров РЖД, а также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экспеди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Команда Арктики» РТУ МИРЭА.

В результате масштабной уборки была очищена вся прибрежная территория бухты Тихо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1,65 км, собрав при этом 2,5 кубометра мусора. Небольшой объем собранных отходов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возросше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ознательности отдыхающих.

Параллельно с уборкой студенты «Команды Ар-

ктики» провели ряд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узнали о правилах сбора и заготовки иван-чая, а также о том, как регион произрастания влияет на его полезные свой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были отобраны пробы грунта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науч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наличие вредных веществ. Результаты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туденты обещали поделиться с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акции и «Движением Первых».

Сахалин에서 통나무 톱질이 포함된 익스트림 달리기 개최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서 <제로 킬로미터> 익스트림 달리기 경기의 일환으로 흥미진진한 톱으로 통나무 자르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 지역 행정부가 전했다.

지난해에는 마스-레슬링이 개최되었고, 이번에 주최 측이 다른 행사를 여는 가운데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가 선수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경쟁자보다 빨리 통나무를 자르는 팀이 승리하게 된다.

주최 측의 한 사람으로서 예브게니 라위츠키는 "톱으로 통나무 자르기는 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고대 루시의 전통 경기이다.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남성적 힘만이 아닌 팀별 작업과 참가자 간의 협동심도 시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На Сахалине экстремальный забег совместят с распиливанием бревен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в рамках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забега «Нулевой километр» пройдет зрелищное состязание по распиливанию бреве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помним,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ходил масс-рестлинг. В этот раз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уже другое. Они обещают, что будет, на что посмотреть. Спортсмены поделятся на две команды. Победит та, что распилит бревно быстрее соперника.

«Распиливание бревен – это традиционное состязание на Руси для крепких мужчин. В нашем случае это будет проверка не только силы, но также командной работы и координации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 рассказал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Евгений Лавицкий.

태국, 러시아인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

7월15일부터 태국에서 러시아 국민 대상 무비자 체류기간이 60일까지 확대된다.

새로운 비자 규정이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미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93개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무비자 체류기간 확대 정책으로 태국의 '부드러운 힘'을 강화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부터 러시아 국민은 태국에서 무비자로 60일간 체류할 권리가 있었지만 이 조치는 임시 조치로 7월 말까지 적용됐으나 지금은 영구적 무비자로 2달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에게 있어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 중 최대 관광시장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올 초부터 약 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태국을 방문했다.

Таиланд увеличил срок безвизового пребывания для россиян

С 15 июля для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будет увеличен срок безвизового пребывания в Таиланде — до 60 дней.

Новые правила коснутся граждан 93 государств, включая Россию, Китай, Индию, ЮАР, ОАЭ, Индонезию, США,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По мнению тайландских властей, продление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позволит укрепить «мягкую силу» королевства и привлечь в страну еще больше туристов.

Отметим, что с мая этого года россияне уже имели право находиться в Таиланде без визы 60 дней, однако эта мера носила временный характер и действовала до конца июля. Теперь же двухмесячный безвизовый период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Напомним, что Россия является для Таиланда крупнейши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рынком среди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Только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королевство посетили почти миллион россиян.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